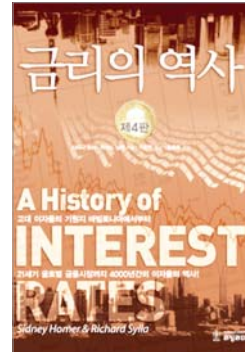


고대·중세·근대시대 속 금리로 가늠하는 '미래의 금리'



리더의 책장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금리의 역사

시드니 호머, 리처드 실라 지음, 이은주 역/리딩리더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채권, 예금, 대출금리 등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일을 벌써 5년 넘게 해오고 있다. 1년에 8번, 한달 반 정도의 간격으로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살펴보고 기준금리 결정에 임하다 보니 아무래도 단기 시계에서의 지표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기 쉽다.

하지만 단기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을 수립할 때도 장기적 시계에서의 금융·경제 흐름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시드니 호머와 리처드 실라의 '금리의 역사'는 경제의 단기적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흑시 지면 밑에서 도도하게 흘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장기 시계에서의 경제적 흐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 준 책이다. 9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고대부터 중세, 근대,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나라들의 쉽게 수집하기 어려운 금리 데이터와 금리 움직임의 배경을 빼곡히 담고 있는 역작이다.

저자인 시드니 호머는 과거 월스트리트의 채권강자였던 살로먼 브라더스의 채권시장 리서치팀을 이끌었던 채권시장 분석전문가로 유명하였다. 이 책의 금리 데이터와 역사

적 배경을 따라가다 얻게 된 몇 가지 인사이트를 간단히 공유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금융시장 발전과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16세기 말 네덜란드, 17세기 초 영국 등 세계를 주름잡았던 국가들의 금리 움직임을 살펴보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며 자연스럽게 패권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통화정책 결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수많은 데이터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인류 최고의 기술혁명 시기라 할 수 있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18세기 후반부터 미국,

등으로 물가와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현재의 저물가·저금리의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금리, 물가 등에 미치는 변화는 단기 시계에서는 잡히지 않는 흐름이라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으로 평가받는 현 시점에서 과거 산업혁명 시기의 경험을 잘 살펴본다면 향후 금리·물가의 움직임에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흔히 역사를 거울에 비유하여 사감(史鑑)이라 한다. 이는 당 태종 이세민이 의관을 정제할 수 있는 동거울(銅鑑), 직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거울(人鑑),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역사 거울(史鑑) 등 본인을 비추는 세 개의 거울(三鑑)이 있다고 한 데 유래했다고 한다. 역사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면 바람직한 미래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일 테다. 여러분도 '금리의 역사'를 통해 금리의 미래를 가늠해 보시기를 권해본다.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다음 글쓰는 이로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을 추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흐름 되새겨 볼 수 있어 과거 산업혁명시대 금리·물가 '역사의 거울'로

이들 국가의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자금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한 채권발행제도 마련, 국가의 재정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등 훌륭한 자본시장인 프라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드니 호머의 분석에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존재는 이들 국가를 금융중심지로 이끌었고 상인들은 도전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며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확대되었으며 국가는 저리로 장기채를 손쉽게 발행해 국방력을 강화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금리가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인 만큼 자금의 수요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금리는 하락 추세에 있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가와 금리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지금까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았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은 정도다.

최근의 인구동학 변화, 신흥국의 노령화

주말은 책과 함께

텍스트가 만들어낸 파급력

텍스트는 컨텍스트라는 단어, 즉 맥락에서 나온다. 행간을 읽으란 말은 글 자체에 집중하는 대신 이 텍스트가 나온 맥락에 주목하란 의미로 사용된다. 강유원 박사의 '책과 세계'는 텍스트를 고전으로 한정하고 컨텍스트를 세계로 확장한 저작이다.



책과 세계

강유원 지음/살림

'민수기', '신명기'로 이뤄진 모세 5경이다.

책은 히브리 민족의 서사시라 할 모세 5경에 등장하는 야훼를 전지전능하지만 피에 굶주린 잔인하고 가차없는 신으로 본다.

야훼가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점지하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지만 이것을 순순히 내주지 않아서다. 신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자식을 죽여 자신에게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한다. 또 마술과 형상을 혐오하는 이 신은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 굶주려 죽어 버린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저자는 "모세 5경의 야훼는 인간이 공포로 움직이는 존재임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간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야훼는 말로써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그의 전지전능함, 잔인함의 원천은 바로 '말', 텍스트, 로고스"라고 주장한다.

이어 "말로써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는 이미지 죽이기,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리화의 원천이며 나아가 인간 본능에 대한 가학적 억압이자 텍스트에 대한 노예화의 출발"이라고 분석한다. 성서라는 텍스트가 '믿음', '신앙', '신', '종교'를 세상 밖으로 계워내며 죽음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93쪽, 6800원. /김현정 기자 hjk10

건축가의 도시



이규빈 지음/샘터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건축가의 도시'는 공간을 해석하는 건축가가 쓴 책이다.

저자는 중국의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건축물의 재료나 입면, 설계 구성 등에 날카롭고 불편한 형태를 차용함으로써 공간이 지닌 진실과 슬픔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음을 읽어낸다. 또 겉으로 드러나는 건축물과 기념비가 없는 미국 9·11 추모공원에서는 빈자리와 부재의 풍경을 바라보며 비극적인 역사를 떠올린다. "결정적인 순간에 건축은 진실 앞에 자리를 양보했다. 바닥을 덮는 대신 높은 층고와 이를 바라볼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축은 완결지어졌다. 그것은 건축가의 이성이 슬픔을 담아낼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설계였다" 어떤 공간을 보고 써내려간 말일까. 328쪽, 1만7000원.

상식의 재구성



조선희 지음/한빛비즈

한국이 중국다음의 감염국가가 됐을 때 우리는 전처럼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감염병의 진원지인 중국을 미워하다가

다음엔 종교활동을 강행하다 수천명을 감염시킨 사이비 신도들을 증오하다가 수도권 코로나19 대유행의 도화선이 된 8.15서울 도심 집회 집단감염이 터지자 극우 단체를 혐오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는지, 20~30대 젊은이들이 왜 이단 종교에 심취했는지, 어르신들이 왜 가짜뉴스에 빠진 지엔 관심이 없다. 많은 이들이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넘쳐나는 정보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대립한다. '상식의 재구성'은 근현대사 흐름 속 한국 사회의 갈등을 다룬 책이다. 정확한 팩트와 역사적 맥락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을 바로 세운다. 560쪽, 2만2000원.



▲中, 공산당 100주년 축하행사...시 주석 "중화민족 부흥은 역사 흐름" /사진 뉴스스
▲'중국에 질세라' 美 뒤늦게 백신 외교 나선다

▲'프랑스 다시 빗장 닫나' 전문가들, "프랑스 올 가을 4차 유행 올 수도"
▲도쿄 확진자 늘자 내내 '올림픽 무관 중론 확산'



▲北, 日 포경업 실태 비판... "인류 규탄 받아야 할 아만국"
▲트럼프 가고 바이든 오니 美 호감도 59%→77% 늘어 /사진 뉴스스